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자	2022. 11. 30.(수)
담당 부서	국가전략연구센터 연구네트워크부	책임자	부장 김순중 (044-211-1110)
		담당자	전문위원 박양하 (044-211-11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베트남사회과학원

제1회 인문국제컨퍼런스 개최

- ‘한-베 수교 30주년과 그 이후 : 인문학의 관점에서’ 주제로 성황리 개최-

- 행사명 : NRC-VASS 제1회 인문국제컨퍼런스 개최
- 일 시 : 11월 29일(화) 09:00~17:00(베트남 현지시간)
- 장 소 : 베트남사회과학원 강당
- 주 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베트남사회과학원
- 주 제 : 한-베 수교 30주년과 그 이후 : 인문학의 관점에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이하 NRC)와 베트남사회과학원(부원장 당 주안 탄(Dang Xuan Thanh), 이하 VASS)은 11월 29일(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1회 NRC-VASS 인문국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한-베 수교 30주년과 그 이후 : 인문학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문화와 역사, 교육, 결혼이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협력의 미래비전을 발굴하고, 양 국가 간 상호이해의 균형적 심화 노력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 컨퍼런스는 NRC 정해구 이사장과 당 주안 탄 VASS 부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청중 질의·응답으로 구성·진행되었다.

- 정해구 NRC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 국민이 서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인문국제컨퍼런스가 문화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하였다.
- 또한, 당 주안 탄 VASS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단절된 NRC와의 협력을 재개하고, 한-베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결혼이주 문제 등 지난 30년간 양 국가 간의 협력을 되돌아보고 양 국가 간의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강희정 서강대학교 교수(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는 기조 강연을 통해 한-베 수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단순한 경제 분야의 발전만이 아닌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인문학적 연구기반의 연구자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인문국제컨퍼런스의 의의를 전하였다.
- 이번 인문국제컨퍼런스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각 세션 발표 후 청중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VASS 당 주안 탄 부원장의 사회로 ‘문화·역사 연구에서의 양 국가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먼저 쩐 티 프영 화 부소장(VASS 역사연구소)이 ‘한국-베트남 역사 연구협력’을 주제로 양 국가 간의 역사연구 협력을 소개하였고, 특히 양국은 역사적 유사성에 대한 합의 이외에 차이점의 탐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를 통한 공동출판을 제안하였다.
 - 이어서 이병한 책임연구원(태제홀딩스 미래연구소, NRC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으로의 30년: 한국-베트남의 역사·문화 연구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양국 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Wave로 일컬어지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의 분야에서 베트남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모두가 활약하는 Asia-Wave를 목표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안 투 트라 부장(베트남 민족학박물관 홍보교육부)은 “베트남 민족 박물관의 한국과 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 발표에서 심도 있는 다국적 지역 문화연구, 문화 분야의 기술 협력 촉진, 협력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두섭 부소장(NRC 국가전략연구센터)의 사회로 ‘문화·역사 연구에서의 양국가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윤종혁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SDG 4.7 범분야 교육개발협력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류 공통의 긴급한 요구 대처 (디지털망, 환경, 창의인재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2050년 미래 교육 변혁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였다.
 - 이어진 레 티투 지앙 교수(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 동방학 부장)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어(학) 교육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베트남 내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마지막 세션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양 국가간의 협력: 결혼이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응우옌 득 빈 소장(VASS 사회학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먼저 응우옌 티 호아이 리잉 국장(베트남여성연맹 대외국)이 ‘국제 결혼 및 이주 문제에 대한 베트남-한국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베트남 여성연맹과 한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양 국가간의 베트남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 한·베 가정지원 등 국제결혼 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 이어서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 가족 현황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한-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 정부에 필요한 노력을 제안하였고, 다문화 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같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귀환 여성과 그의 자녀에 대한 베트남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응우옌 티 탐 박사(VASS 동북아연구원)가 ‘베-한 결혼의 행복과 갈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한-베 다문화 가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각 국가의 전통문화와 일상문화 이해를 위한 실천적·구체적 지식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건의하였다. 또한 한국 내 베트남 가족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는 2019년 NRC와 VASS 간 정책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양국 간 협력 관계 지속과 인문학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 인문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연례적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국제 학술교류를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위축된 양 국가 간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인문학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붙임 1. 제1회 NRC-VASS 인문국제컨퍼런스 사진**

붙임 2. 제1회 NRC-VASS 인문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끝.

<인문국제컨퍼런스 사진 1>



<인문국제컨퍼런스 사진 2>



<인문국제컨퍼런스 사진 3>



시 간	내 용	비고
08:30~09:00	등 록	
【개 회 식】		
09:00~09:05	소 개	
09:05~09:15	개회사 1 : 베트남사회과학원 부원장	각 10분
09:15~09:25	개회사 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09:25~09:30	기념사진 촬영	
【기 조 연 설】		
09:30~09:50	[대주제 : 한-베수교 30주년과 그 이후: 인문학의 관점에서] 강희정 교수(서강대, 인문특위위원)	
09:50~10:00	휴 식	
【제1세션】 문화·역사 연구에서의 양국가간 협력 사회 : 당 주안 탄 부원장(베트남사회과학원)		
10:00~10:15	발표 1: 쩌 티 프엉 화 부소장 (베트남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장)	각 15분
10:15~10:30	발표 2: 이병한 박사 (태제홀딩스 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인문특위위원)	
10:30~10:45	발표 3: 안 투 트라 부장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홍보교육부)	
10:45~11:30	질의·응답(청중 질의응답 포함)	
11:30~13:30	오 찬	120분
【제2세션】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육협력 사회 : 윤두섭 부소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13:30~13:45	발표 1 : 윤종혁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각 15분
13:45~14:00	발표 2 : 레 티투 지앙 교수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 동방학부장, 베트남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14:00~14:30	질의·응답(청중 질의응답 포함)	
14:30~14:40	휴 식	
【제3세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양국가간의 협력 : 결혼이주를 중심으로 사회 : 응우옌 득 빈 교수(베트남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		
14:40~14:55	발표 1 : 응우옌 티 호아이 리잉 박사 (베트남여성연맹 대외국장)	각 15분
14:55~15:10	발표 2 :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10~15:25	발표 3 : 응우옌 티 탐 박사 (베트남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	
15:25~16:10	질의·응답(청중 질의응답 포함)	
【폐 회 식】		
16:10~16:20	마무리말씀 1 : 베트남사회과학원 부원장	각 10분
16:20~16:30	마무리말씀 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